

# 과거를 생각하는 나라는 개체가 없어지니까 떡을 해서 먹었다

##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분별력이 있는 자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고, 불경에는 인과법칙론이 쓰여 있는데 결과를 보아서 원인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정확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영생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별해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서 없애버리려면 나한테 지지 않고 나라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나라는 것을 이기려면 나의 성품이나 인간성이나 본성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대가 뚜렷한 사람은 나라는 의식인 마귀의 영이 강하니까 쫓대가 강하고, 또 고집이 센 사람도 자존심이 강하니까 고집이 센 것입니다. 자기주장 이외에 다른 사람의 주장은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남자들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부인이 이야기하는 건 듣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왜 빨리 죽느냐 하면, 사자마귀가 강해서 즉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사자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기 부인의 말을 잘 듣고 또 자기 자식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쫓대가 없다고 말할 하는데, 실은 쫓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고집이 너무너무 쎄 가지고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인 고로 마귀의 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아담과 해와 죽, 인류의 조상이 먹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성경 말이요, 성

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영적 과일이요, 영적 과일인 고로 영입니다. 영이 바로 신이며 신은 신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 죽이는 신입니다. 죽이는 신이 마귀임으로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 반대생활을 해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반대생활을 하라고 그림니다. 나라는 것이 우측으로 가려고 하면 좌측으로 가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썴바귀를 먹었습니다. 일이 하기 싫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고 일하면서 쉬고 싶으니까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기 싫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생활을 해야 점점 나라는 주체의식이 약화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약해졌을 때 마귀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지, 강한 마귀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고로 제단 가기 싫으면 제단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면 벌써 마귀한테 진 것입니다.

### 나라는 개체가 죽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사람에게 해와 이긴자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하시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주 과거가 생각나니까, “왜 또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느냐?”고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생각을 안 하려고 집중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산에 가서 땅을 파는 일도 하고 또 포도밭 일대에 풀이 난 것을 일일이 뽑지 아니하고 삽으로 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넓은 바닷을 전부 삽으로 파서 없으니까 그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



구세주 조희성님

이 반대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되니까 밀실 안에서 떡을 해 먹었는데, 왜 그러나 하면 떡이라는 건 쌀가루를 뭉쳐서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없어지고 열 개, 백 개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개체가 죽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나라는 개체가 없어지니까 떡을 해 먹는 것입니다. 밀실 식구들은 왜 떡을 해 먹는 줄 몰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신이 알려주니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그걸 이기고 나니까 가족이 자주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그러면서 “관심은 음란죄를 왜 자주 짓느냐?”고 타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다 음연 밀실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도 관심의 음란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사이 나사이로 가야지, 옆에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는 고로 이 사람이 옆 사람을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것도 되어졌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음란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외롭다는 건 이긴 마귀생각입니다. 그런 고로 외롭게 생각하는 것도 마귀생각이요 음란죄가 되는 고로 외롭다는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멸망은 물론 하나님도 지옥

마음의 싸움에서 잘 이겨나가고 어느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니까 전도를 나가라고 해서 장로교를 세운 유 장로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요강에다가 피를 쏟아놓고 그 요강을 들고나오면서 이 사람한테 말하기를, “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요강에 피를 많이 쏟았는데 힘이 없거나 어지럽지도 않고 힘이 딱 뻘뻘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변으로 그렇게 사커면 피가 쏟아지는 건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죽은 그 시체가 피로써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무척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유 장로라는 사람이 “이 장로교를 내가 세웠지만 조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고로 내가 받을 수는 없고 대신 교회 간판을 갈아라. 장로교 간판을 떼어버리고 전도관 간판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관 간판을 달게 되니까 이 사람 마음이 흐트러지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밀실을 향해 갔는데, 해와 이긴자가 밀실 정문 앞에 서서 “저 음란죄를 진 마귀새끼! 들어오지 못하게 밀실 문을 잠가!”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밖에서 “해와 주님, 내가 무슨 음란죄를 저었습니까?” 하니까 “네가 좋아하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해서 좋아하냐? 네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했지! 그게 좋아하는 음란죄야, 마귀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란죄라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이 그때 생각으로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라면 인간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인간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포기할 마음을 먹고 땅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해와 이긴자가 문을 열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목매달아 죽을 끈을 찾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눈물을 펄펄 쏟으면서 목매달아 죽을 끈을 찾고 있는데, 영모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문을 잠갔는데 들어오셨으니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영모님의 몸을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손을 붙잡고 영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느냐?”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모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니까 이 사람도 역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시는 영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펄펄 울면서 뉘우치니까 영모님이 온데간데없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보니까 잠긴 채 그대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니까 그렇게 나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에 오셨냐 하면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은 물론 하나님도 지옥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급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꼭 이긴자가 되어야 하나님도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이 사람 방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나가신 것입니다.

### 철두철미한 기도생활과 반대생활

죽을 마음을 고쳐먹고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맡기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정을 이루는 데 이것을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것을 지옥에 던져도 좋고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고 똥투간에 던져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반대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반찬이 나오면 다른 형제들은 고기를 다 먹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썴바귀를 먹었습니다. 작업복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일하는데 어찌 고기가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를 안 먹고 썴바귀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왜 고기를 안 잡수시느냐?”고 묻는 고로 “예, 나는 고기를 원래 못 먹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 원래 못 먹어요?” 하고 대답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살을 할 마음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이 나는 고로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깨우친 것입니다.\*

2001년 6월 16일 말씀 중에서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6장 40년의 광야생활》



### (9) 시내광야에서 바란광야로 나아가다

#### (9) 시내광야에서 바란광야로 나아가다

출애굽 2년 1월 14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시내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십 세 이상 되는 모든 장정들을 그 진영별로 계수하여 병적부에 올려라. 다만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법계가 보관된 성막을 관리하게 하라. 각 지파에서 가문의 우두머리(족장)를 한 사람씩 내어 너희를 돕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이를터든지 한 달이든지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견혀 올라갈 때 길을 떠났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빛을 발하는 구름이 법계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은 모세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니팔을 불

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 진지를 옮겨가며 행진하였습니다.

진지를 떠나기 전에, 모세는 시내광야의 서남쪽 바드 마을에 사는 장인 이드로(또는 르우엘)의 아들 호랍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처남 호랍이 미디안의 지리와 기후를 잘 알았고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안전한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호랍은 이러한 모세의 간청을 물리치고 자신의 고향 바드에 가서 친족들과 함께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와 그의 아들 호랍이 모세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미디안 광야생활 40년이 대대로 전해지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이드로의 가족들은 본토에 남게 되었고, 그들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미디안

의 라오즈산(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모세와 대면하셨고, 또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배회하다가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라오즈산)의 시내광야에서 동쪽으로 한나절 정도 행진하여 바란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활한 바란광야는 애굽의 시나이반도보다도 더 넓었으며 그 광야의 북쪽은 가나안 국경과 맞닿고 있었습니다.

시내광야를 떠난 지 사흘 만에 바란광야에서 쉴 곳을 찾은 곳은 호렙산(하나님의 산)에서 동쪽 70킬로미터쯤에 있는 꾸레이야(Qureiyah)였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가데스(Kadesh; 거룩한 샘)가 있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와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와 언약(법계)가 삼 일 길에 앞서서 그들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그 위에 덮였으리라  
35절: 계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계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 였더라

출애굽 당시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해를 건너 미디안 땅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 호렙산 동쪽에 위치한 꾸레이야, 즉 가데스까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따라온 자는 처음의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40만 명으로 줄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가데스에



성막을 세웠는데, 그때가 출애굽 2년 2월(이아르월) 하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3월(시완월) 초순에 4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 가운데 2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6만 명을 징집하여 가나안으로 향해 부친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6만 명의 군사는 호렙산 인근에 있는 가데스에 먼저 둘러 하나님의 산(라오즈산)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세일산 남쪽까지 진군하였습니다. 세일산 너머 북쪽에는 에돔 부족이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쪽으로 우회(迂廻)한 이스라엘의 6만 명의 군



사는 네겝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브엘라해로’라는 샘이 있는 곳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호렙 산(라오즈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